



먹구름 낀 혁신도시 16일 먹구름이 잔뜩 낀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31만5000㎡(221만평)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현장. 눈이 내리면서 택지 조성 공사를 위해 투입했던 굴삭기가 멈춰서 있다.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는데다,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해 건설사들의 공동주택 건립 일정도 늦춰지면서 정부가 공언했던 ‘혁신도시 2012년 준공’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유명도시 되나

내년 완공 불구 주거단지는 2013년 이후로 늦춰져

택지 대부분 안팔리고 이전기관 청사 착공도 지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공동주택 건립이 2013년 이후로 늦춰지면서 공공기관 청사만 있고 사람은 없는 ‘유명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전기관들의 청사 착공도 더디기만 해 정부가 공언해온 ‘혁신도시 2012년 준공’도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유명도시’ 불보듯=16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LH는 최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3개 필지(15만8776㎡)에 225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2013년~2015년까지 짓겠다는 ‘보급차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고시했다는 것이다.

LH는 이번 고시를 통해 혁신도시내 3만 9788㎡ 부지에 대한 아파트(624세대·60~85㎡이하) 건설사업은 2013년 12월까지, 또 4만4789㎡에 짓는 공동주택(602세대) 건립은 기간을 2015년까지로 잡았다. 또 1029세대 규모의 공공임대(10년) 아파트의 경우 2015년 5월까지 준공기로 했다.

LH는 앞서 혁신도시 내 3개 국민임대아파트(14만7433㎡·60㎡이하) 사업 준공 시기도 애초 계획했던 2012년에서 2013년 3월~12

월까지 연기기로 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결국 LH가 혁신도시 내 짓는 모든 아파트가 2013년 이후에 들어서는 셈이다.

◇공동주택용지도 대부분 안팔려=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부지도 아예 팔리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LH·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등 3개 시행사의 공동주택용지는 모두 21개 필지 121만307㎡로, LH가 12개, 광주도시공사 5개, 전남개발공사는 4개 필지를 각각 개발중이다.

계획대로라면 LH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자체 매입한 6개 필지를 제외한 15개 필지가 민간 건설사에게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15개 필지 중 1개 필지(1만 9219㎡)만 분양됐을 뿐 나머지 14개 필지는 건설사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 LH는 대금 납부조건을 크게 완화(3년 무이자 분할→5년 무이자 분할 납부)하고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환불이 가능한 ‘토지 리턴제’를 내걸고 수차례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에 실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아예 정식 분양 공고조차 내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추천 방식으로 건설업체 물색에 나서기도 했지만 희망 건설사

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

전남개발공사도 ‘5년 무이자’ 조건을 내걸고 수차례 분양 공고를 냈지만 끝내 4개 공동주택 택지 매각에 실패한 채 중단한 상태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 착공 계획은 커녕, 택지 매각조차 이뤄지지 않은 탓에 2012년 말까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주택 없이 공공기관 건물만 있는 유명도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도시 2012년 준공 가능할까=정부가 공언한 ‘2012년 혁신도시 준공’도 말뿐인 ‘허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청사 착공을 하지 않은데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회관 등 5개 기관은 부지매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우 애초 지난해 하반기 착공하러던 계획을 올 6월 이전으로 늦췄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문화예술회관 등 4개 기관은 이전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혁신도시 시행사 관계자는 “청사 건축에 통상 1년 6개월~2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 모두 착공해야 준공 시기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인 8명 승선 선박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

한국인 8명이 승선한 삼호해운 소속 화물물집(케미컬) 운반선인 삼호주얼리호가 우 리시각으로 15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 이라 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피랍 선박은 몰타 선적의 1만1500t급(적재톤수)으로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 등 총 21명이 승선 중이었다. 피랍된 지점은 오만과 인도 사이 인도양 북부의 아라비아해 입구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스리랑카로 이동 중 피랍된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6일 “한국인 8명을 포함해 선원 21명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피랍사건은 지난해 4월 인도양에서 납치된 원유 운반선인 삼호드릴호 선원 24명이 피랍 217만인 11월7일 석방된 지 두달여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연합뉴스

영하 13도

광주·전남북 7년만의 한파

19일부터 다소 누그러질 듯

16일 오전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4도를 보이는 등 7년만의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당분간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다. <관련 기사 6면>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17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눈이 오는 날씨가 계속될 뒤 오는 19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16일 예보했다.

17일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북

1~5cm, 서해안 3~10cm다. 눈은 오전에 내린 뒤 낮 동안 잠시 그쳤다가 다시 밤부터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안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2~4m로 높

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다.

한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광이 영하 12.3도, 순천 영하 11.2도, 목포는 영하 8도를 기록했다.

또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대설주의보와 함께 해안에는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가 내려지는 등 광주와 전남·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강추위와 바람이 맹위를 떨쳤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남 시 진정 양상

추가 의심신고 없고 곳곳 음성 확인 사례 늘어

구제역은 백신접종 시작

전남을 휩쓸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심 신고가 크게 줄어든데다, 고병원성이 아닌 음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16일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은 19곳 외에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의심할만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이들 동안 AI 관련 의심 신고가 전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닭과 오리도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하루에도 5~6건씩 쏟아지고 하루에만 6개 농가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흘 전과는 확연히 다

른 양상이다.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39건의 의심 신고 가운데 음성으로 확인된 건수는 14건으로, 14일 38건의 의심 신고 사례 중 8건이 음성으로 확인됐던 것에 견줘 크게 늘어났다.

전남도는 전체 살처분 대상 329만7000마리 가운데 261만2000마리(79.2%)의 매몰이 완료됐고 군 병력 등이 투입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어 AI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AI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진다는, 철새 이동시기(12월~4월까지)를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정부의 구제역 예방백신 전국 확대 방침에 따라 전남도내 사육종인 모든 소(54만5000마리)와 중돈장 돼지(11만4천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도 16일부터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전남도는 설 이전에 소에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흘 안에 예방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검사를 수 없었던 AI 확산 추세가 좀 꺾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제적인 예방작업과 감염지역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예방 백신을 최대한 서둘러 설을 앞두고 농가에서 출하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남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시승 및 구매 고객님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Mercedes-Benz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냉정한 판단력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그들조차 따라오게 만듭니다. 언제나 분명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나,

C-Class는 나를 닮았습니다.

●행사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경남 창원 3호선 연니 및 동진 • C 200 CDI BlueEFFICIENCY 1,796cc, 1570kg, 지름95다, 11.9km/ℓ, 3.9ℓ/㎞, CO₂배출량 197g/㎞ • C 220 CDI BlueEFFICIENCY 2,143cc, 1,645kg, 지름95다, 15.5km/ℓ, 1ℓ/㎞, CO₂배출량 173g/㎞ • C 250 2,496cc, 1,625kg, 지름97다, 9.1km/ℓ, 4.4ℓ/㎞, CO₂배출량 258g/㎞ • C 63 AMG 6,208cc, 1,655kg, AMG SPEEDSHIFT 자동7다, 6.1km/ℓ, 5.4ℓ/㎞, CO₂배출량 385g/㎞
※ 난 연리는 유류소비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하중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1분기 물가상승률 4% 내외 전망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6일 “국제 유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지난해 가을 많이 뛰었던 채소값도 전월 대비 하락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과, 폭설, 구제역 등 물가 관리에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당초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상반기는 평균 3.7%였다.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평균 87달러일 것이라는 전제를 배경으로 나온 수치다.

그러나 최근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이미 90달러를 훌쩍 웃돌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몇몇 유종(油種)은 100달러를 넘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원유, 금속광물,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국내 물가 상승률은 1.35%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57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오늘 광주일보 신춘문에·광일문학상 시상식 ▶오후 4시 히딩크 호텔